

삼성 KPMG

성공하는 기업의 비즈니스 어드바이저

Channel

2018 March_Vol.182

새봄,
새 출발!
코로!





Cover story

새로운 계절 봄에 시작된
아름다운 동행, '파란행복'!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따스한 햇살이 기분 좋은 봄이 왔습니다.

삼성KPMG는 희망이 싹트는 봄, '파란행복'이란
나무를 심게 되었습니다. '파란행복'은 회계법인 최초로
삼성KPMG가 설립한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입니다.

아름다운 동행의 첫걸음인 '파란행복'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응원 속에서 무럭무럭 자라나
'건강한 성장'을 이뤄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Contents

March 2018 Vol.182 삼성KPMG 뉴스레터.

건강한 성장

- 04 **Issue Focus**
미국 세제 개혁, 우리 기업 어떻게 대응할까?
- 06 **Team Story**
삼성KPMG 인프라 자문팀
- 08 **Client+**
아이마켓코리아
- 10 **Market Reader**
미래 자동차 혁명이 가져올 붕괴와 성장
- 12 **Expert's Advice**
해외 부동산 투자 어떻게 할까?
- 13 **맛있는 경제**
알면 더 좋은 시사·경제 상식!

행복한 일터

- 15 **삼.소.해**
에너지 UP! 삼성인에게 힘을 주는 보물 1호는?
- 16 **인재양성소**
인재 성장과 본부 문화를 위해 힘쓰는 PPC Officer!
- 18 **KPMG Tour**
추억을 찾아 떠난 대구 여행
- 20 **Culture & Etiquette**
이웃 나라 일본의 비즈니스 문화와 에티켓
- 22 **KPMG Story**
Lead by example: 솔선수범
- 24 **파란행복**
삼성KPMG '파란행복'의 시작!
- 26 **Samjong News**
업계 최초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파란행복' 출범 外



발행처 삼성KPMG 기획·편집 홍보팀(02-2112-7567) 디자인 네오메디아(02-512-1666) 인쇄 보명 C&I(02-2274-4545)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강남파이낸스센터 27층 (우편번호) 06236 홈페이지 www.kpmg.com/kr

QR코드를 통해 삼성KPMG의 생생한 정보를 만나보세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삼성KPMG 홈페이지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Tax Cut and Jobs Act



미국 세제 개혁, 우리 기업 어떻게 대응할까?

미국 트럼프 정부의 핵심공약이었던 대규모 감세를 골자로 미연방 세제 개혁안이 지난해 12월 22일 대통령의 최종서명을 거쳐 확정됐다. 향후 10년간 1.5조 달러의 감세가 예상되는 이번 개혁법안은 개인, 모든 산업 분야의 기업, 다국적 기업 등 전 분야에 걸쳐 세제 정책의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삼정KPMG는 글로벌 조세 전문가를 통해 미국의 세제개혁 내용과 기업의 대응방안에 대해 모색해보고자 한다.

| 법인세 관련 주요 개정...법인세 인하 등

미국의 개정세법은 2017년 12월 3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는 법인세율을 최고 35%의 누진세율에서 21% 단일세율로 변경했다. 또한, 고정자산의 일시 비용처리 한도는 이전 50만 달러에서 최대 1백만 달러로 증가됐고, 특정 사업 자산(중고자산 포함)에 대해 한시적으로(2017.9.27~2023.1.1) 100% 보너스 감가상각을 허용했다. 개정세법에 따르면 일부 법인을 제외하고 모든 차입금으로부터 발생한 이자비용은 EBITDA의 30% 범위에서만 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기업의 순이자비용 공제제한 규정을 강화했다. 아울러, 2018 사업연도부터 결손금 공제액을 과세 소득의 80%로 제한했으며, 결손금에 대한 소급공제 규정을 폐지하는 대신, 이월공

제를 영구적으로 허용했다. 주요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 관련 연구 개발세액공제(R&D Credit) 유지, 국내제조소득공제 폐지(Domestic Production Activities Deduction), 에너지투자세액공제 유지(Business Energy Investment Tax Credit) 등으로 변경된다. 이외에도 개정세법은 2018년 과세연도부터 법인세에 대한 최저한세를 폐지했다. 이와 관련하여 이월되는 최저한세 세액 공제액(AMT Credit)은 당해연도 일반 법인세(Regular Tax)와 상계 후 남은 세액공제액의 50%를 2018년부터 2020년 사업연도까지 환급받을 수 있으며, 잔존 세액공제액은 2021년에 전액 환급된다.

| BEAT, FDI 등 국제 조세 관련 주요 개정

미국 공화당 지도부는 개정 세법의 핵심 목표 가운데 하나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기 위한 것'이라고 밝혀왔다. 기존 미국 세제가 해외 기업이나 해외에 모기업을 둔 인바운드(inbound) 미국 현지법인들에게 유리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는 인식이다. 이 '운동장 평탄작업'을 위해 개정세법은 여러 가지 당근과 채찍을 쓰고 있다.

그중 미국 투자 외국 소유기업들에게 가장 매서운 것이 세원잠식방지 최저세(Base Erosion and Anti-Abuse Tax, 'BEAT')라고 할 수 있다. BEAT는 미국법인이 미국세제상 공제가능 한 경비를 해외 관계사에 지급하는 경우 이를 '세원잠식 지급액'으로 보고 이와 같은 세원잠식에 대해 부과하는 일종의 최저세에 해당한다. 당해연도 이전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이 연간 \$500M 이상인 미국법인 가운데 세원잠식 비율(Base Erosion Percentage)이 금융회사의 경우 2%, 비금융회사인 경우 3% 이상인 법인들에 적용된다. 세원잠식비율은 '당해 연도 공제 총액' 가운데 '세원잠식 공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세원잠식 공제액은 해외 관계사에 지급하는 비용 전반과 해외 관계사로부터 취득한 감가상각 가능자산의 감가상각비는 포함하나 매출원가나 원가보전방법에 따라 이윤 없이 지급하는 서비스 제공 대가는 제외된다. 한편, 보험회사의 경우 국외 재보험 지급액(Reinsurance payment)도 세원잠식 공제액에 해당한다. 매출원가가 세원잠식의 범주에서 제외됨에 따라 제조업과 종합상사 등은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은 반면 보험회사를 포함한 금융권은 BEAT로 인한 세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BEAT 최저세는 조정과세소득(Modified Taxable Income)에 당해연도 BEAT 세율(10%)을 적용함으로써 산출한다. 조정과세소득이란 세원잠식비율을 산출할 때 분자로 쓰였던 세원잠식 공제액을 표준과세소득에 더한 금액이다.

미국 법인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무형자산 소득(Foreign-Derived Intangible Income, 'FDII')에 대해서는 일반 법인세율인 21%가 아닌 13.125%(2025년 12월 3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는 16.406%)의 낮은 세율로 과세가 이뤄진다. FDII는 일반적인 영업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무형자산 소득 중 해외에서 창출된 소득을 의미한다.

또한, 2017년 12월 31일 이후의 사업연도에 대해 특정 사업연도 중 국외지배자회사('CFC')의 지분 10% 이상을 보유하고,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 CFC의 지분을 보유한 미국 납세자는 글로벌 저과세 소



득, GILTI(Global Intangible Low-Taxed Income)를 계산해 자신의 보유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10.5%의 유효세율을 곱하여 과세가 이뤄진다. 이는 미국 납세자가 해외에 소득이전을 억제하기 위한 세법개정의 일환으로, 저세율국가에 소재한 해외투자기업을 통한 무형자산 소득에 대해 미국 모법인에 대한 배당여부와 상관없이 미국에서 과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 미국 세제 개혁이 국내 법인의 미국 자회사에 미치는 영향

미연방 세제개혁 결과 법인세율이 대폭 인하되었기에, 국내 기업들의 미국 투자진출 확대에 결정적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이미 과열되고 있는 전 세계적 법인세 인하 경쟁을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세제개혁은 미국기업들의 해외투자에 불이익을 주고 국내 투자를 장려함으로써 자국 내 일자리 보호를 최대 목표로 삼고 있다. BEAT 등은 미국 기업들의 해외 직접투자를 억제하는 반면, 미국에 진출한 해외법인 중 해외 관계사와 무형자산 거래와 금융거래를 통해 지급하는 비용이 상당한 기업의 경우 타격을 줄 수 있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GILTI 관련 세법개정은 해외 저세율 국가에 설립된 국외지배자회사가 중요한 무형자산을 소유해 많은 수익을 발생시키고 미국 모법인에게 이익을 이전하지 않는 관행을 억제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2017년 12월 31일 이후 국외지배자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할 예정인 기업들은 GILTI 적용 대상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한편, 상품 또는 제품을 해외에 수출하거나 서비스를 해외 법인에게 제공하는 미국 내 한국 기업들의 경우에는 FDI 관련 세제 혜택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CONTACT US

삼정KPMG GLOBAL TAX 오상범 전무

Tel. 02-2112-0721 E-mail. sangbumoh@kr.kpmg.com

성공적인 금융을 위한 Counsel 삼정KPMG 인프라 자문팀

삼정KPMG는 지난해 10월,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는 등 약 20명의 인력으로 인프라 자문팀을 확대 개편했다. 인프라 관련 초기 사업 타당성 검토에서부터 Financing 자문, 효과적인 운영/관리 자문, 해외의 우수한 인프라에 대한 투자 및 인수 자문 서비스 등에 이르기까지 인프라 자문의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객의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국내 인프라 시장,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가 트렌드

인프라 업계는 2010년까지 대형 건설사와 제1금융권의 주도로 도로, 철도, 항만 등 중후장대한 대형 사업을 중심으로 성장해왔다. 이후 이러한 성장은 민간발전(석탄화력, LNG복합화력발전) 및 신재생에너지 시장으로 확대됐고, 최근에는 해외 자산으로 관심이 크게 확장됐다. 이에 따라 인프라 업계도 기존 대형 건설사, 제1금융권 은행뿐만 아니라 다수의 시행사, 중소형 건설사, 증권사, 운용사 등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참여하는 시장으로 성장했다.

성숙기에 진입한 국내 인프라 시장에서는 '재생에너지 3020 계획'에 기반을 둔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가 시장의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기존의 투자자산인 도로, 철도, 항만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리파이낸싱 또는 재구조화 형태의 Restructuring 업무가 다수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해외 시장에서도 신재생에너지와 파이프라인이나 송전선, 터미널 같은 업스트림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 정부와의 협력으로 이뤄지는 PPP사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학교, 병원, 상하수도 등으로 투자 대상시설의 확대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해외 대규모 연기금의 포트폴리오 관리를 위한 후순위 또는 지분 매각에 한국 연기금, 보험사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금융시장의 트렌드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며, 미국발 트럼프 정부의 노후 인프라 개선사업, 중국/인도 및 동남아시아의 지속적인 인프라 확충, AIIB와 GCF 등의 신흥국 투자사업에서의 한국 기업 사업참여 확대 등

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어 해외에서 지속적인 비즈니스 기회가 파생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프라 전 분야를 아우르는 전문가 집단, 삼정KPMG 인프라 자문팀

삼정KPMG 인프라 자문팀은 재무에 강점이 있는 경영/경제학과 출신의 공인회계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인프라의 기술적 특성을 이해하기 위한 공대 출신의 회계사, 최근 해외 인프라 비중 확대에 따른 외국대학 출신의 미국 공인회계사 및 컨설턴트 인력으로 구성돼 금융을 위한 기본적인 사업성 검토 업무뿐만 아니라 성공적인 금융을 위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다른 경쟁 업체들과 달리 재무적 타당성 업무에 국한하지 않고 법률, 기술, 보험 등의 Sub 컨설턴트를 고용하여 사업성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종합 서비스를 추구하고 있다. 무엇보다 국내 인프라 업계에서 가장 많은 주선 및 자문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제1금융권 은행을 비롯해 인프라 업계에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대형 증권사, 인프라에 특화된 자산운용사 등 전략적 투자자뿐만 아니라 금융권의 다양한 고객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삼정KPMG 인프라 자문팀의 강점이다. 특히 해외 인프라 자문의 경우 KPMG의 Global Infrastructure Project Group이라는 별도의 네트워크 조직을 통해 글로벌 노하우를 활용한 차별화된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하다.

‘삼성KPMG 인프라 자문팀’ 주요 서비스

▶ 사업계획 수립 자문

민간투자법에 따른 다양한 SOC민간투자사업과 민간참여 공동주택개발사업 및 공동택지개발사업 등 민간과 공공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민간 또는 정부를 위한 재무 관련 사업계획 수립과 자금조달 전략 및 시장분석 등의 서비스 제공

▶ 사업 타당성 검토

수력,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을 포함한 다양한 발전사업 및 수처리, 도로, 철도 등과 관련한 국내외 시장분석, 개발 전략 및 리스크 관리 방안 그리고 재무성 분석 등 투자 의사 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석업무 수행. 해외 인프라의 경우 투자 대상국의 투자 환경 및 세무 검토 등을 위해 현지의 KPMG 네트워크를 활용한 정확한 분석과 자문 진행

▶ 투자 유치 및 금융 자문

사업성 있는 인프라 사업에 대한 투자 유치 전략 수립, 전략적 지분투자자 유치 및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위한 협상자문, 투자 실행을 위한 투자 조건 검토 등 제반 금융 자문 서비스 제공

업계 No.1 자문팀을 목표로, 다양한 경험 지닌 전문 인력 확충에 총력 기울일 것

성숙기에 접어든 국내 인프라 시장은 절대적인 Deal의 수가 줄어들고 있어 인프라 업계 전반에서 해외 시장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금융기관별 해외 네트워크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삼성 KPMG 인프라 자문팀은 다양한 프로젝트 경험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금융을 위한 종합 서비스를 기본으로 하되 삼성 KPMG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금융기관의 Deal Sourcing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업계 No.1 자문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또한 최고의 자문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인프라 경험을 가진 전문 인력 확충에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삼성KPMG 인프라 자문팀의 최고 장점은?

“삼성KPMG 인프라 자문팀은 재무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법률, 기술, 보험 등 컨소시엄 형태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긴밀한 협업 체제를 유지하며 인프라 전반적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최고의 인프라팀으로 시장에서 인정받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경험을 갖춘 인프라 자문 관련 전문 인력을 대거 영입하여 특화된 지식과 실력을 겸비한 전문가들이 성공적인 프로젝트의 개발 및 금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효진 상무(팀 리더)

Tel. 02-2112-0393 / E-mail. hkim68@kr.kpmg.com

“해외 자산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은행, 증권사, 운용사, 보험사, 연기금 등 인프라 업계 Player들이 많아지는 최근 상황을 감안할 때 KPMG 글로벌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은 KPMG의 큰 경쟁력입니다. 앞으로도 삼성KPMG 인프라 자문팀은 전 세계 154개국 KPMG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여 프로젝트 개발부터 금융까지 아우르는 종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홍민성 부장

Tel. 02-2112-3564 / E-mail. minsunghong@kr.kpmg.com

“삼성KPMG 인프라 자문팀의 장점으로 들 수 있는 것은 팀원 간의 소통입니다. 업무적으로는 상무님을 비롯 상하관계에 상관 없이 토론하고 결론을 도출하는 문화가 있어, 여러 인프라 asset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서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인프라팀이 만들어진 이래로 타사 대비 해외 인프라 업무를 다수 수행하여 경쟁력 있는 track-record와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것을 강점으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태현 부장

Tel. 02-2112-6846 / E-mail. taehyunnam@kr.kpmg.com

“삼성KPMG 인프라 자문팀은 전통적인 인프라 영역에 국한하지 않고 최근 플랜트, 에너지, 환경 등 다양한 서비스 영역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프라 전문가로 성장하고자 하는 열정을 가진 전문가를 20명 가까이 보유하고 있어 고객에게 적시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정유철 부장

Tel. 02-2112-7637 / E-mail. yuchuljeong@kr.kpmg.com



지난해 10월 외부 전문가 영입 등 약 20명의 인력으로 확대 개편된 인프라 자문팀.



아이마켓코리아 World Class 산업 자재 유통서비스 기업을 지향하는 **아이마켓코리아**

2000년 12월에 설립된 아이마켓코리아는 소모성 자재(MRO), 원부자재 등의 구매 및 유통을 통해 B2B MRO 전자상거래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구매 전문가들이 구매 전반의 업무를 대행해주는 것은 물론, 고객의 기존 구매 데이터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구매 프로세스를 설계해주고, 구매 환경에 최적화된 국내 유일의 자체 시스템을 갖춰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해준다.



소모품 구매대행부터 토탈 서비스까지 한 번에!

‘기업 소모품 구매대행 사업(MRO)’은 대기업의 업무 효율화를 위한 ‘업무처리 아웃소싱’ 차원에서 출발했다. MRO는 (유지), (보수), (운영)의 머리글자에서 따온 용어로 기업에서 제품 생산과 관련된 원자재 및 대형 설비를 제외한 기업에 필요한 모든 소모성 자재를 말하며, ‘기업 소모성 자재’, ‘기업운영 자재’ 등으로 부른다. 일반적으로 사무용품, 공구, 기계부품, 청소 용품 등의 소모성 자재를 말하지만, 최근에는 소액 설비와 관련 토탈 서비스 등을 포

함하는 개념으로 그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일례로 아이마켓코리아에서는 PC, S/W, 모바일, 전자기기 등 최신 IT 제품의 공급은 물론, 설치 및 운영, 유지·보수 등의 통합적인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건설 현장 및 리모델링 현장에서 필요한 모든 품목을 취급하고 사무환경에 대한 토탈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업영역을 ‘단순 품목 구매’에서 ‘토탈 서비스 제공’으로 확장하며 고객의 편의성을 높이고 있다.

최적의단가,최상의구매 서비스제공

아이마켓코리아는 20여 년에 달하는 풍부한 경험과 구매 전문성을 바탕으로 최적의 구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구매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중 75% 이상이 품목 전문가이며, CPSM(국제 구매 공급 관리 전문가) 자격증 소유 비중이 54%에 이른다.

또한 업계 최고, 최대 수준의 구매 컨설턴트를 보유하고 있어 구매 프로세스 전반에 대해 분석하고, 각 고객사의 특성에 맞는 최적의 프로세스를 제안해 고객사의 실질적 비용 절감 및 효율화를 위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축구장 9.2배 규모에 달하는 물류센터와 59,000여 개의 공급사가 아이마켓코리아의 서비스 향상을 든든히 뒷받침해주고 있다.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 '동반자'

아이마켓코리아는 해외 시장 개척과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전략적 글로벌 소싱을 통해 세계 각국의 우수 공급사 및 상품을 발굴하고 있으며, 4개의 해외법인을 설립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다.

2012년 미국 법인 IMA(iMarketAmerica)를 시작으로 베트남 법인 IMV(iMarketVietnam), 중국 법인 IMX(iMarketXian)과 IMF(iMarketFocus)를 차례로 설립해 삼성전자 및 협력사 등 국내 기업 해외 법인의 구매를 지원하고,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기업과 현지 기업으로 영업을 확대하며 독자적인 영업망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현지에서 국내 기업이 수월하게 영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수출입 대행 및 현지 기업의 구매 업무 지원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으며, 국내 기업의 우수 제품을 수출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영업 지원도 나서고 있다.

'임직원이 행복해야 고객도 만족한다'

아이마켓코리아의 매월 셋째 주 목요일은 캐주얼 복장을 하고 와도 되는 '패밀리데이'이다. 이날은 오후 5시면 사무실 전체가 소등되고 임원들이 나서서 직원들의 퇴근을 재촉한다. '워라벨'(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을 강조하는 트렌드에 맞춰 '일찍 귀가해 여가도 즐기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라'는 배려인 것이다. 또한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직원들을 위해 2016년 개원한 '아이앤어



1. 아이마켓코리아의 물류센터 현장

2. 매월 봉사 활동을 진행 중인 IMK 봉사단의 모습

3. 겨울이면 호빵을 무제한으로! 행복한 일터를 위한 임직원 호빵 이벤트

린이집'은 최고의 시설과 전문 보육교사들의 지도로 만족도가 매우 높다.

아이마켓코리아는 이색적인 사내 이벤트를 자주 진행해 사기 진작과 즐거움을 제공하고 있다. 여름에는 시원한 아이스크림을, 겨울에는 따끈따끈한 호빵을 무제한으로 제공해 즐겁고 활기찬 직장 생활을 지원하여 같은 건물에 입주해 있는 타기업 직원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또한 직원들의 여가 활용 및 친목 도모를 위해 동호회 활동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설립한 IMK 봉사단은 매월 적극적인 활동으로 유명하다. 매달 아동복지센터를 방문해 봉사 활동을 진행하고, 사랑의 밥차와 함께 배식 봉사 활동도 꾸준히 전개하며 사랑을 전파하고 있다.

미래 자동차 혁명이 가져올 붕괴와 성장

| 전기자동차 혁명, 내연기관 파워트레인 Down 배터리·신재생에너지는 UP

IEA(International Energy Agency)에 따르면 2016년 순수 배터리 전기차(BEV) 신규 등록 대수는 46만 6천 여대에 이르렀으며, 5년간 연평균 성장률 68%를 기록했다. 배터리 전기차의 확산과 함께 수소 전기차(FCEV)의 상용화도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아직까지 수소 전기차는 배터리 전기차만큼의 확장성을 보여주진 못했지만 배터리 전기차의 긴 충전시간 등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주행거리에서도 배터리 전기차를 압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에 미래 성장잠재력이 큰 편이다. 특히 현대자동차는 2018년 1월 'CES 2018'에서 차세대 수소 전기차 '넥쏘(NEXO)'를 공개했는데, 1회 충전으로 600km 이상을 주행할 수 있고 충전시간은 5분 이내인 것으로 알려졌다. 즉, 수소 전기차는 충전시간과 주행거리에서 배터리 전기차 보다 확실한 비교우위를 갖고 있음을 확인케 했다.

전기자동차의 확산은 내연기관 자동차 그 자체뿐만 아니라 기존 부품시장의 붕괴를 서서히 야기한다. 대표적으로 내연기관의 핵심인 엔진, 변속기, 클러치 관련 부품들의 수요가 감소하게 된다. 주기적으로 교체해온 엔진오일도 더는 필요 없다. 이에 해당 부품 업체들은 신사업 영역 개척이 필요하다. 한편 전기자동차는 핵심부품인 배터리, 모터, 인버터 시장을 성장시킬 것이다. 특히 IT 기기와 가전제품 중심으로 성장한 배터리 산업은 새롭게 등장한 전방산업인 전기자동차의 확산으로 인해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배터리의 성장은 다시 연쇄적으로 리튬, 코발트, 니켈, 망간 등 핵심 광물의 수요를 증가시킨다. 또한 전기자동차는 신재생에너지와 분산 발전을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된다. 실제로 2016년 태양광 기업 솔라시티를 인수한 테슬라는 기존 슈퍼차저에 태양광 전지판과 ESS를 설치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이는 신재생에너지 확산뿐만 아니라 중앙 집중형 발전 시스템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 자율주행, 이동수단은 물론 새로운 업무 및 문화 생활공간 될 것

기존 자동차는 마력, 속도, 외관 등 하드웨어적인 성능이 자동차의 가치로 반영됐다. 그러나 자율주행으로 인해 소프트웨어와 연결성이 제품의 경쟁력을 좌우하게 되면서 기존 OEM 중심의 수직 계열화된 자동차 산업의 생태계가 이종 업종 간의 수평적 협력관계로 점차 변해갈 것이다. 또한 자율주행은 건물 및 도시 인프라를 변화시킨다. 도로망을 중심으로 발달한 도시는 자동차를 위해 상당히 많은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의 도로는 사람의 인지능력을 고려하여 구축됐으나 자율주행은 사람이 인지에 따라 차선을 바꾸고 제어하는 것이 아니기에 도로의 여유 공간이 자율주행에 맞게 축소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은 기존 운송시스템의 붕괴를

현재 자동차 산업은 혁명적 변화의 시기에 놓여있다. 배터리 전기차의 확산, 수소 전기차의 상용화로 포스트 내연기관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며, 연결성과 이동성 기술의 발전으로 자율주행과 모빌리티서비스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사실 이 중에 단 한 가지 변화만으로도 자동차 산업의 기존 질서가 붕괴될 만큼 파괴력이 있지만, 놀랍게도 현재 이러한 변화는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가져올 것이다. 미래에는 자율주행과 결합한 차량공유 플랫폼 기업이 사람과 물건들의 운송을 담당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자율주행은 교통사고의 감소라는 명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했을 때 확산된다. 자율주행으로 인한 근본적인 교통사고의 감소는 기존 보험회사의 수익모델을 붕괴시킬 수 있다.

자율주행의 초기 단계에서는 주행환경을 인식하기 위해 장애물, 도로표식, 교통신호 등을 인식하는 카메라, 레이더, 라이다 센서들의 수요가 촉발될 것이다. 또한 자율주행차는 이동수단과 함께 새로운 업무공간이자 문화 생활공간이 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자동차 인포테인먼트 시장을 성장시킬 것이다. 이는 콘텐츠 시장뿐만 아니라 이동통신 시장의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며, 다양한 화면을 구현해 내는 차량용 디스플레이 시장도 새로운 성장동력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이버 보안시장의 성장을 가져올 것이다. 물리적인 이동과 연계된 사이버 보안은 생명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충분한 신뢰가 확보돼야 한다.

| 차량공유 확산, B2C가 아닌 B2B 변화 이끌어

전통적인 자동차 비즈니스 방식은 '제품 제조와 소비자 판매'이다. 차량공유의 확산은 점진적으로 B2C 차량 판매 방식의 붕괴를 가져올 것이다. 차량이 공유되기 시작하면 차 1대 당 효율성이 올라가며, 차량 1대 당 이용자 수가 증가한다. 더 이상 사람들이 차 한 대씩을 갖게 될 유인이 줄어든다. 차량 한 대의 주행거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교체주기가 빨라진다 해도 차량 공유 시대가 다가올수록 신차 수요가 점차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차량공유가 자율주행차와 만나면 현재 우버와 같은 P2P 방식의 연결은 불필요하다. 자동차 수명의 한계에 따라 생산은 이뤄지지만 판매할 곳은 일반 소비자가 아니다. 자동차 업계가 스스로 생산한 자동차를 공유하고 사용료를 받는 방식, 또는 플랫폼을 장악한 사업자에게 자동차를 납품하는 B2B 방식으로 변해갈 것이다.

미래 자동차 혁명의 승자가 되려면 통합적인 시각을 바탕으로 개발을 진행해야 한다. 전기자동차는 주행 동력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시스템과 인포테인먼트를 안정적으로 구동시켜야 하고, 자율주행의 지시를 즉시 이행할 수 있을 만큼의 정확성과 민감성을 갖춰야 한다. 그리고 전기 동력의 자율주행차를 모빌리티 플랫폼에서 어떻게 최적의 서비스로 구현시켜 소비자와 만나게 할 것인지도 고민해야 한다. 그러나 하나의 기업에서 이를 모두 수행하기는 쉽지 않다. 결국 미래 자동차 시장의 공급자인 자동차 및 IT·소프트웨어 업계는 개방성을 갖고 협력적인 밸류체인을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



CONTACT US

삼성KPMG 경제연구원

임두빈 책임연구원

Tel. 02-2112-7469

E-mail. doobeenyim@kr.kpmg.com

해외 부동산 투자 어떻게 할까?

3월호에서는 부동산 시장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경제 성장의 디딤돌을 마련할 수 있는 해외 부동산 투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나, 해외 부동산에 투자하는 부동산 펀드는 실물을 직접 확인하는 기회는 물론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정보가 적기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삼정KPMG의 부동산 투자 전문가를 통해 현명한 투자 방법은 무엇인지 조언을 구해봤다.



삼정KPMG 부동산 투자 전문가
김정환 상무

Q. 타국 대비 한국의 부동산 투자 비율은 높은 편인가요?

A. '20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여유자금이 생기면 부동산에 투자할 의사가 있는 가구주는 56.0%에 달하며, '국부 통계로 본 우리나라 경제의 특징' 자료를 보면 국내 가계 순자산에서 비금융자산(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75.8%에 이릅니다. 이는 미국(34.9%)의 두 배로 일본(47.3%)과 영국(55.3%) 등과 비교해도 매우 높은 비율입니다. 이렇게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한국인은 부동산을 직접 매입하는 투자 이외에 부동산펀드를 통한 간접 투자에도 활발합니다. 특히 해외에 투자하는 부동산펀드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지난 2017년 9월 말 기준 376개의 부동산펀드가 해외 부동산에 투자했고 순자산 가액은 28조 9610억 원으로 전체 부동산펀드의 50.3%에 이릅니다.

Q. 현재 해외 부동산 투자 시장 상황은 어떠한가요?

A. 해외 부동산 투자는 투자 규모가 크고 투자 구조의 이해가 어려워 대부분 기관투자자가 대체투자 상품의 하나로 진행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개인투자자들도 해외 부동산펀드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 항공우주국(NASA) 본사 빌딩에 투자하는 부동산펀드와 북미 최대 보험사 스테이트팜 애틀랜타 사옥에 투자하는 부동산펀드 등이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제는 부동산 투자의 관점에서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 기회를 찾아야 할 때입니다. 해외에는 위험 대비 수익률이 높은 부동산이 국내보다 많습니다. 전통적인 해외 부동산 투자처는 역시 미국이며 미국 부동산의 가격 상승으로 인해 유럽도 새로운 투자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투자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곳으로 추천합니다. 타 국가 대비 부동산 수익률(자본환원율)은 상대적으로 낮으나 연 1% 정도의 낮은 차입금리를 바탕으로 충분한 차입비율(LTV)로 투자한다면 매우 높은 투자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환헤지(Foreign Exchange Hedge)를 통한 프리미엄으로 추가 수익률을 더욱 높일 수 있고 도쿄올림픽 등의 국제 이벤트도 부동산 투자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Q. 현명한 해외 부동산 투자 방법에 대해 조언해주신다면?

A. 해외 부동산 투자 상품은 중위험·중수익 상품에 해당하며, 대부분 안정적인 투자 수익을 기대하고 원금손실 위험을 회피하는 부동산에 투자하게 됩니다. 따라서 투자 기회를 분석할 때 무조건 높은 수익만을 좇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설정한 위험도를 고려해 적절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부동산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회계법인 등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을 통한 전문적인 투자 자문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15세기 스페인의 후원을 받은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해 스페인이 전성기를 누릴 수 있는 기초가 됐듯이 우리나라도 해외 부동산 투자의 신대륙 개척을 통해 대한민국의 성장을 위한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100%

알면 더 좋은 시사·경제 상식!

<맛있는 경제>에서 주목하는 최신 이슈는 무엇일까? 이번 호에서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새롭게 탄생한 용어와 바뀐 일상에서 휴식이 필요한 현대인들을 위해 생긴 신조어를 살펴본다.

스마트시티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고 영상회의 등 첨단 IT 기술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미래형 첨단도시를 의미한다. 지난 1월 29일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국토부 등 정부 유관기관 등은 합동 브리핑을 통해 세종 5-1블록과 부산 에코델타시티 두 곳을 '스마트시티' 시범 도시로 선정했다. '스마트시티' 사업은 자율주행차, 인공지능, IoT 등 다양한 4차 산업혁명의 융·복합 기술을 토대로 이전의 도시들과 차별화된 형태의 도시 관리 및 운영을 지향하는 사업이다. 스마트시티는 실시간으로 교통정보를 얻을 수 있어 이동거리가 줄고, 원격근무가 가능해지는 등 거주자들의 생활이 편리해지고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줄일 수 있는 이점을 갖고 있다.

출처: 연합인포맥스

케렌시아

최근 '2018 소비 트렌드 키워드'로 선정된 스페인어인 '케렌시아(Querencia)'는 나만이 알고 있는 아늑한 휴식 공간을 뜻한다. 본래는 투우장의 소가 투우사와 마지막 일전을 앞두고 잠시 숨을 고르는 곳이라는 뜻이다. 즉, 중대한 일을 앞두고 최대한 에너지를 모으는 곳으로 바뀐 일상에 지친 현대인에게 가장 필요한 공간이다. 케렌시아의 대표적인 예로 새로운 개념의 공간디자인이나 수면 카페, 낮잠극장 등 '도심 속의 힐링' 공간이 각광받고 있다. 1코노미 시대 나홀로족 최적의 케렌시아는 '집'으로, 신경건축학이 강조되는 시대에 집을 푸르른 식물로 꾸미려는 플랜테리어 트렌드가 인기를 끌고 있으며, 맨케이브(man cave)는 남성들의 심리적 위안과 안정을 주는 사적인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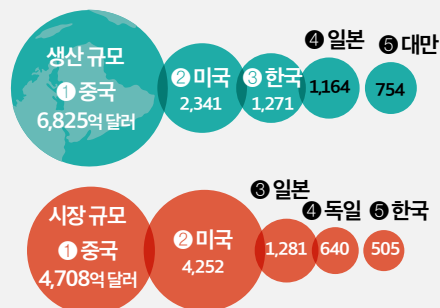
한국 전자산업 세계 위상 어떠할까? ...

생산 3위·소비 5위

지난해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전자제품을 3번째로 많이 생산하고, 5번째로 많이 소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1월 26일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가 발간한 'CEO 리포트'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전자산업 생산 규모가 전년 대비 10.3% 증가했다. 또한,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6.6%에서 6.8%로 소폭 확대되며 3위를 기록했다.

자료: The Yearbook of World Electronics Data 2017

세계 전자산업 생산·시장 규모



행복한 일터

삼.소.해

인재양성소

KPMG Tour

Culture & Etiquette

KPMG Story

파란행복

Samjong News



삼정인, 소개해주세요!

에너지 UP! 삼정인에게 힘을 주는 보물 1호는?

삼정인의 소개로 만들어 가는 칼럼 <삼.소.해>. 이번 호에서는 Busy Season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는 삼정인에게 힘을 주는 보물 1호는 무엇인지 알아봤다.



나의 힘, 나의 보물은 사랑스러운 딸! 김충원 S.Manager(FSTax)

나의 보물 우리 딸 김지우. 우리 딸은 2016년 8월 2일 오전 9시 19분에 강남 모 병원에서 가장 우량아로 태어났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딸의 외모가 바뀌듯이 우리 딸이 태어나면서 내 인생이 바뀌었다. 항상 힘들다고 투덜거리던 과거와 달리, 요즘은 Busy Season에도 하루하루 변해 가는 딸을 보면서 즐겁게 일할 수 있게 되었고, 더 열심히 살아가야 할 이유가 생겼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늘 함께해준 나의 보물 Foxy! 박소은 Associate (CM)

2차례의 Busy Season인 기말감사를 견디게 해준 저의 보물 1호 강아지 Foxy를 소개한다. Foxy는 몸무게가 20kg이고, 견종은 Australian Cattle Dog로 호주에 드넓은 풀밭에서 뛰어놀다 온 아주 자유로운 영혼의 강아지이다. 생년월일은 2012년 7월 15일생으로, 벌써 함께한 지 5년 반이 흘렀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항상 내 옆을 지켜줬고, 외국 생활이 힘들고 외로워 우울할 때 늘 내 옆에서 묵묵히 지켜주던 분신 같은 친구다. 내게는 남편만큼 소중한(!) 존재이다.



사무실에서 즐기는 차 한 잔이 내 삶의 힘 남혜영 대리 (DPP)

나에게 힘을 주는 것은 바로 '사무실에서의 티타임'이다. 하루 8시간 이상을 사무실에서 보내며 버텨야 하는 '직딩들에게 오아시스' 같은 존재는 바로 커피나 차가 아닐까? 싶다. 개인적으로 커피보다 차를 좋아해서 다양한 차를 마시는데, 가끔은 빵이나 쿠키 등을 곁들여 먹으며 힐링 시간을 갖는다. 부서의 여행자, 출장자 분들이 사다 주는 각국의 차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선물이다. 함께 티타임도 하고, 여행이나 출장 이야기도 들을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 되기 때문이다. 삼정KPMG 가족 여러분들도 티타임을 통해 힘을 내고, 기분도 Up 되셨으면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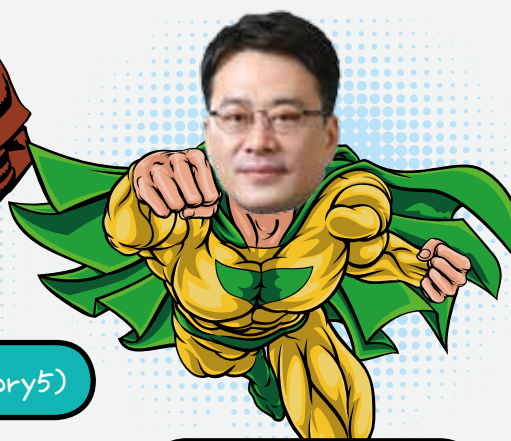


인재 성장과 본부 문화를 위해 힘쓰는 PPC Officer!

본부원들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또 건강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힘쓰며, 본부의 어머니와도 같은 역할을 하는 PPC Officer. 이번 호에서는 각 본부의 PPC Officer를 만나, PPC Officer의 역할은 무엇인지 또 앞으로의 목표와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박영걸 이사(Deal Advisory5)



전종무 이사(RCS)



신영아 이사(L&D)

PPC Officer에게 PPC Officer란?

전종무 본부 PPC Officer로 활동한 지, 벌써 3년이 되었네요. 특별히 선정된 계기가 있었던 건 아니고, 본부 내에서 선후배 동료들과 평소에도 자유롭게 의사소통을 하고 카운셀링을 많이 하고 있어서 저를 팀원들 간에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책임자로 생각해주셨던 같아요. 생각해보니 제게 PPC Officer는 ‘스토리(Story)’인 것 같네요. PPC Officer를 하다 보면 다양한 사람들의 희망과 고충의 스토리가 우리 본부 내에 녹아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런 다양한 스토리들이 모여서 KPMG라는 공동의 목표를 이뤄내고 성장시켜 나간다는 건 참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박영걸 PPC Officer로서 저보다 선배시네요. 저는 본부 내에서 2년간 PPC Officer를 담당해오고 있어요. 조직은 일이라는 매개를 통해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모인 개인들의 집합이에요. 때문에 조직 구성원들과 공통된 문화를 공유하고 조직/HR과 관련된 고민을 함께 상의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를 현장에서 실천하기 위해 저 역시도 조직 구성원들과 소통하고 함께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게 PPC Officer는 ‘Good Listener’예요. 열심히 경청하는 것이 PPC Officer로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신영아 두 분 모두 제가 많이 배워야 할 PPC Officer이시네요. 저는 지난해 9월에 KPMG UK Learning으로 파견 업무를 마친 후 삼정KPMG에 복귀하여 현재는 Learning & Development를 담당하고 있어요. 한국으로 복귀한 지 오래되진 않았지만 우리 본부의 조직 문화에 대한 지대한 관심으로 스스로 자원하게 되었어요. 신나게 함께 일하는 본부 문화를 위해 많이 더 노력해야 하고, 또 저 스스로가 술선수범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기에 PPC Officer는 돌보기가 아닐까요? 보지 못한 것을 들어 다보게 해주고, 중요하나 모르고 지나칠 법한 것을 크게 확대하고 강조하며, 무엇보다 구성원 마음에 긍정의 불을 붙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PPC Officer로서 느낀 보람들

박영결 다양한 직급의 동료들이 회사 생활의 고민을 제게 찾아와 공유해 줄 때 보람을 느껴요. 그 누구에게도 말하기 어려운 다양한 고민들을 나누고, 개선 방안을 함께 논의하며 PPC Officer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누군가에게 편한 상담자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은 참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아요. 물론 이러한 고민들을 듣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게 하는 건 매우 어렵지만요.

신영아 제가 PPC Officer로서 가장 먼저 진행한 활동이 본부 워크숍이었는데요, 항상 삼성KPMG 가족들의 성장과 경험을 위해 교육을 기획, 준비하는 본부원들을 위해 이번에는 제가 좋은 경험을 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싶은 마음이 제일 컸던 거 같아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정성껏 준비했는데, 본부원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참석하는 모습과 제 '정성'을 알아주는 피드백을 통해 뿌듯함을 느꼈어요. 그리고 PPC Officer로서 우리 본부원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이 제게 보람을 준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요.

전종무 저는 주기적으로 본부원들과 만남을 통해 다양한 바람이나 애로사항 등을 듣고 있어요. 이를 통해 주니어 컨설턴트들이 법인 생활을 하며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3가지 요소가 무엇인지 알게 됐죠. 첫째, 본부에 강한 소속감을 느끼고 둘째, 전문가 정신으로 똘친 좋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셋째, 금융산업 발전에 의미 있는 과제와 관련된 프로젝트에 배정받아 일하는 것이더라구요. 물론,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었지만, 프로젝트 계획단계에서부터 컨설턴트 개개인과의 상담 또는 협의를 통해 가능하면 본부원들이 최적으로 도전하며 일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배정해주고 그 이유를 설명해줌으로써 좋은 호응을 이끌어 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본부원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 그리고 앞으로의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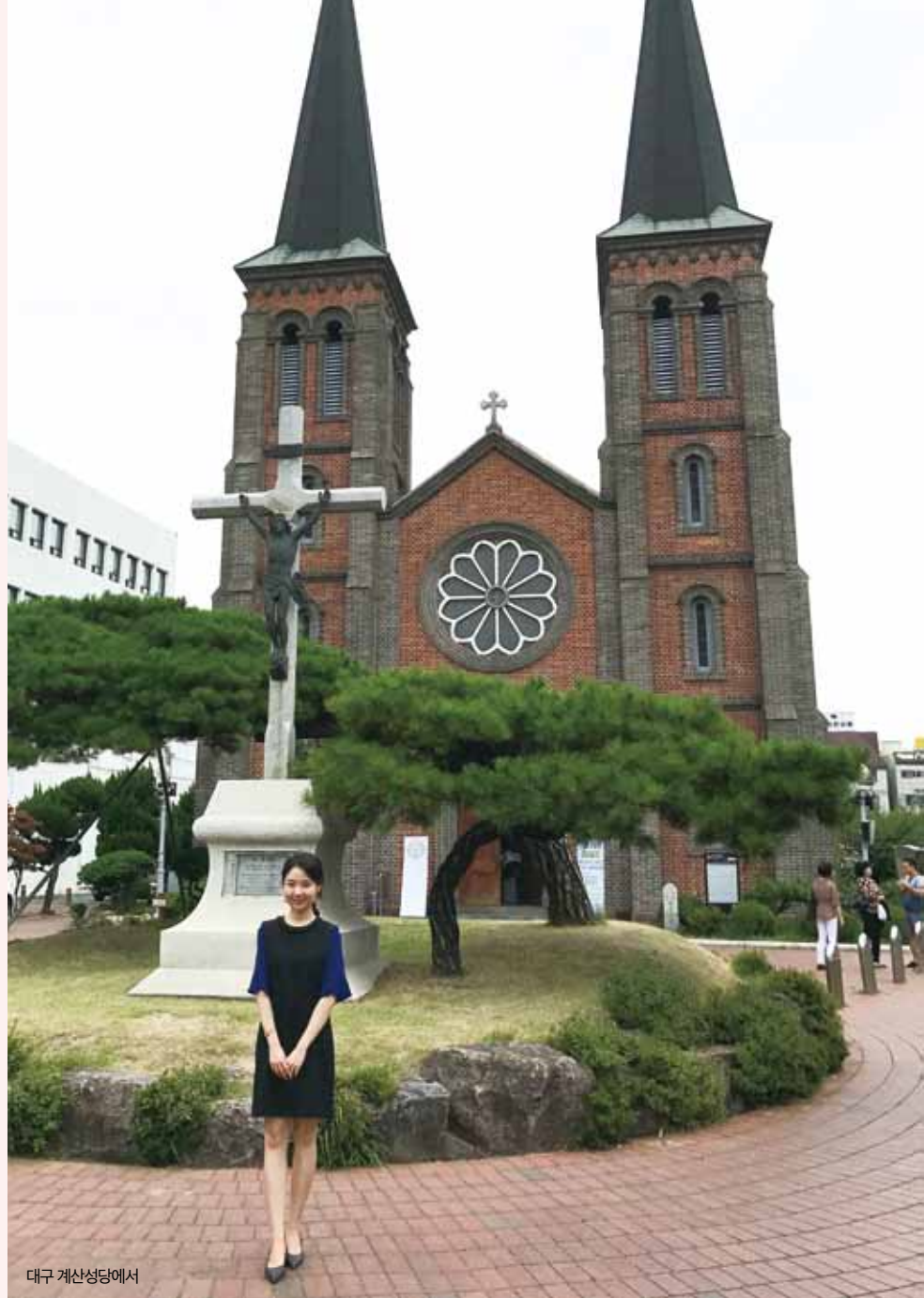
신영아 저는 본부원들에게 "What gives meaning to what you do?"라고 건네고 싶어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의미와 가치가 있는지 함께 고민하고 찾아가고 싶기 때문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관점'으로 일을 바라보고 meaning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인데요, 본부 PPC Officer로서 저부터 솔선수범하는 것이 우선인 듯해요. 저 먼저 노력하고, 본부원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전종무 PPC Officer를 하면서 느낀 점은 'Bottom-up보다 Top-down의 의사소통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지 않았나?'였어요. 즉, 관리자급에서 고민하는 주요 사안을 본부원들에게 적기에 공유하면, 본부원 간의 상호 이해를 도와 좀 더 조화로운 소속감이 고취될 거라 생각해요. 이를 위해서는 저보다 더 뛰어난 본부의 PPC Officer를 발굴해 내고 싶어요. 현재로서는 제가 그 역할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목표이지만요. 하하. 아무쪼록 우리 본부원들이 동료, 선후배, 고객과 자주 소통하며 현재 맡은 프로젝트를 본인의 삶의 의미와 긍정으로 결부시켰으면 좋겠고, 주저하지 말고 조직 내에서 원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용기, 또 그러한 문화가 형성되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박영결 저는 늘 옆에서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PPC Officer가 되고 싶어요. 특히, 우리 본부는 지속적으로 성장을 이뤄가고 있는 본부로 앞으로 더 많은 이슈가 있고, 해야 할 일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돼요. 이럴 때일수록 PPC Officer가 본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인식하고 스스로 더 열심히 노력할게요. 그러기 위해선 본부원들과 같은 위치에서 고민하고, 그 솔루션을 찾아 나가는 게 우선인 것 같네요. 하하.

IA/FR본부 정유진 Associate ‘혼자라도 좋아! 하루라도 좋아!’ 추억을 찾아 떠난 대구 여행

따뜻한 봄 날씨가 기대 되는 3월이다. 봄이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봄나들이. 올해 봄나들이를 어디로 떠날지 고민하고 있다면 정유진 Associate가 추천하는 대구 당일치기 여행은 어떨까? 지금부터 정유진 Associate가 소개하는 대구 여행을 만나러 간다.



대구 계산성당에서

부모님을 위해 준비한 혼자만의 대구 당일치기 여행!

지난해 9월 초, 당일치기로 혼자 대구 기차 여행을 다녀왔다. 미리 계획하지 않고, 발길이 이끄는 곳을 관광하고 돌아왔는데 비교적 성공적이었다. 짧은 주말을 이용해 다녀왔지만, 어느 때보다 여유를 느꼈고, 여행지 본연의 매력을 느끼고 왔기에 삼정KPMG 가족에게 소개하고 싶었다.

사실, 여행지를 대구로 정한 이유는 부모님의 결혼기념일에 맞춰 부모님의 결혼식 장소였던 '계산성당'에 방문하기 위해서였다. 결혼식 날의 어머니와 같은 나이가 된 내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사진을 찍어 보내드려 추억을 회상할 수 있는 작은 선물을 해드리

당일치기! 대구 여행 코스

하중도 서문시장 근대문화골목 동성로

고 싶었기 때문이다. 부모님께서 사진을 보시고, 가장 기억에 남은 선물이었다고 말씀하셔서 뿌듯했다. 특히, 이번 여행은 되려 스스로에게 선물을 준 것처럼 행복했다. 우리 가족의 역사적 장소에 직접 방문하니, 가족과 함께해온 소중한 감사한 시간들이 떠올랐고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혼자 다녀온 당일치기 여행이었지만 가족 모두에게 의미 있었던 여행을 삼정KPMG 가족에게 지금부터 소개한다.



1. 서문시장에 모습 2. 근대골목과 이어진 3.1 운동 계단
3. 푸른 담쟁이덩굴이라는 이름을 가진 청라언덕(근대문화골목2코스)



3

대구에 왔다면 이곳을! 관광 장소 Best 3

① 봄에는 유채꽃이, 가을에는 코스모스가 피는 '하중도'

비교적 널리 알려지지 않은 장소인 '하중도'. 무계획으로 출발한 대구행 기차 안에서 우연히 하중도 코스모스 축제가 열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방문한 곳이었다. 하지만, 기대 이상으로 너무 아름다웠다. 시내와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해 주위가 모두 산으로 둘러 쌓여있고, 사방에 다홍색으로 물든 코스모스들이 만발해있어 어떻게 찍어도 그림같이 예쁜 풍경이 담긴다. 가을이 아니라 아쉬워 말자! 봄에는 유채꽃 축제가 열린다고 하니, 색다른 대구 여행을 위해 올봄에 꼭 한번 방문해 보는 것을 추천한다.

② 이국적인 분위기를 선사하는 '근대문화골목길'

근대문화골목길은 대구 여행 중 빠질 수 없는 대표적인 장소 중 하나이다. 이곳은 아름다운 근대 건축물들로 이국적인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청라 언덕을 따라 걸으면 대구 최초 성당인 '계산 성당'뿐만 아니라 '3.1운동 계단'과 같은 역사적 장소도 구경할 수 있다. 특히, 코스의 끝에는 대구의 명동이라 불리는 '동성로'까지 이어져 있어 볼거리가 넘치며, 골목골목 숨어있는 아기자기한 상점들과 예쁜 카페들을 구경하는 소소한 재미가 인상적이었다.

③ 여행의 꽃은 역시 시장! '서문시장'으로 오이소!

국내 여행의 묘미는 그 지역의 시장 구경이 아닐까 싶다. 대구 '서문시장'은 4000여 점포가 들어선 대구, 경북 제일의 전통시장이라고 한다. 위치도 지하철역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보이는 곳에 있어 찾아가기도 쉽다. 시장 안에서는 옷, 물품 등 다양한 가게들이 있었지만 그중에서 단연 먹거리들이 가장 눈에 들어왔고, 떡, 과일, 밤, 고구마 등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간식들이 가득해서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즐거웠다.

대구에서 맛보는 옛날 과자!



대구 달성공원 근처 옛날 과자 맛집 '적두병'을 추천한다.

아는 사람만 아는 대구의 숨은 맛집으로, 밤과자, 공갈빵, 팔빵 등 다양한 메뉴 중 직접 끓인 팔앙금이 가득 담긴 '적두병' 과자가 제일 인기메뉴다. 팔을 좋아하는 나에게는 어느 맛집 메뉴보다도 맛있었고, 사장님의 후한 인심이 인상적이다.

정유진 ASSOCIATE가 전하는 여행 꿀 TIP

1. 대구에는 근대 문화 골목 외에도 다양한 골목 투어가 있다. 크게 5가지 골목 투어가 있는데, 원하는 여행 컨셉에 따라 여행 코스에 반영하면 좋다. 코스별 자세한 특징은 '대구광역시 중구 문화관광' 홈페이지에 방문하면 확인할 수 있고, 투어 지도도 제공하고 있다.



2. 대구의 대부분의 명소들은 지하철을 이용해서 편하게 갈 수 있다. 교통상황과 날씨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당일치기 여행 시 시간을 알차게 보낼 수 있을 때에 지하철 이용을 추천한다.

3. 어느 장소에 가든 목적지의 실시간 상황(날씨, 인파, 교통 등)이 가장 중요하다. 실시간 상황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SNS 해시태그를 장소로 검색하는 것을 추천한다. 실시간으로 업로드되는 그 장소에서 찍은 사진을 보여 비가 오는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등을 확인해서 미리 준비, 대응하면 좋다.



이웃 나라 일본의 비즈니스 문화와 에티켓

일본은 우리나라만큼 유교 문화의 영향이 강하지 않지만, 유교 문화의 영향으로 도덕을 중시하고, 가족관계, 연공서열, 주군에 대한 충성 등을 중시하는 문화이다. 가까운 나라라, 닮은 점도 많겠지만 또 일본만의 차별화된 문화가 있기에 일본 Korea Desk에 파견 중인 임재익 S.Manager를 통해서 일본의 문화와 에티켓은 무엇인지 살펴보려 한다.

좌석에도 상하관계가 있다!

일본에서는 회의실, 식당, 택시 등 대부분의 공간에서 앉은 좌석의 순서가 있습니다. 좌석이 상하관계를 나타내는 표시로, 이를 매우 중요시 여긴다고 합니다.

좌석 순서의 기본은 손님이 상석이 되고 접대하는 측이 하석입니다. 그리고 입구에서 가까운 자리가 하석이고, 먼 자리가 상석이 됩니다. 회의실이나 식당 등의 공간을 생각할 때 입구로부터 먼 안쪽이 상석이 되고, 입구로부터 가까운 쪽이 하석이 됩니다. 중국 식당과 같이 원탁 테이블인 경우에는 문에서 제일 먼 쪽이 상석이고, 상석으로부터 오른쪽과 왼쪽을 번갈아가며 자리를 앉게 되면 입구 자리가 하석이 되는 즉, 상석과 반대편에 하석이 위치하게 됩니다.

엘리베이터에는 문으로부터 제일 안쪽 가운데가 상석이 되고 제일 하석은 패널(panel) 앞자리가 됩니다. 타고 내리는 사람을 위해 패널을 조작해야 합니다. 특히 일본 사람들은 엘리베이터에 타고 내릴 때, 몸이 부딪치지 않도록 정말로 정중하게 타인을 배려합니다.

택시를 타는 경우에는 운전석의 뒷자리가 제일 상석이고, 운전석 옆자리가 제일 하석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운전석의 뒷자리는 타고 내릴 때 불편함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그럴 경우에는 상사에게 양해를 구하고 먼저 타겠다고 해야 된다고 합니다. 운전석의 뒷자리가 제일 안전한 자리라서 상석이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편, 고객이 직접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는 경우엔 운전석 옆자리가 상석이 된다고 합니다. 유교 문화를 기본으로 하는 우리나라 정서와 큰 차이는 없으나 일본은 특히나 비즈니스 예절과 규칙을 중요시하기에 유의하면 좋을 듯합니다.

이것만은 꼭! 일본 Etiquette Plus+

1 고객과 미팅 시 혹은 식사 자리에서 핸드폰을 테이블에 올려놓거나 간혹 주머니에서 꺼내서 보는 행위는 실례이기에 일본 사람들은 중요한 고객과의 자리에선 절대로 핸드폰을 꺼내서 보지 않습니다.



2 운전 시 자동차 경적소리는 삼가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좀처럼 경적을 울리지도 않고 양보운전이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비즈니스의 기본, 명함을 중시하는 문화

비즈니스 사회에서는 명함에 적힌 회사명과 직책이 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자신의 명함도 그렇지만 상대방의 것도 매우 소중히 취급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특히 명함을 명함 케이스가 아닌 지갑이나 양복바지에서 꺼내는 것은 실례이며, 건네는 사람의 인상도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고객과의 명함을 교환한 후에는 상대의 명함을 자신이 앉은 테이블 위 또는 명함 케이스 위에 올려놓습니다. 상대방이 여러 명일 경우엔 동일하게 가로로 나란히 놓아야 합니다. 명함을 받은 후 곧바로 자신의 명함 케이스에 넣는 일은 큰 실례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고객사에 방문했을 경우, 방문한 쪽에서 먼저 명함을 건네고 받은 명함에 메모 등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마스크 없인 못살아~ 마스크도 패션!

일본에 와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낯설고 이상하게 생각되는 점 중의 하나가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착용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미세먼지가 적어 공기의 질이 나쁘지도 않은데, 그렇다고 감기에 걸리지도 않은 것 같은데 지하철이나 길거리에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많고 사무실에서 착용해도 이상하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공공장소에서 워낙 조용한 일본 사람들이라 여러 사람들이 마스크를 착용한 것을 보았을 때 한동안은 그 모습을 보는 제가 답답했고,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싶지 않은 심리를 마스크로 표현할 것일까 하는 오해를 하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마스크를 쓰는 여러 이유를 알게 되면서 괜한 오해



1. 도쿄역의 신칸센. 빠르고 편리하지만 요금이 조금 비싸다. 2시간 거리에 9천엔 정도.
2. 감사 클라이언트의 방문 (호텔롯데의 자회사-롯데아리조트)

는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의 상당수가 '카훈쇼'라고 해서 꽃가루 알레르기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곳 동경은 겨울이 그리 춥지 않아서인지 벌써부터 꽃가루 알레르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감기 바이러스로부터 예방 차원에 마스크를 착용하기도 하지만 일본 사람들 특유의 타인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감기 기운이 있다 싶으면 마스크를 착용하는 경향도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여성들 사이에서 민낯을 가리거나 패션 아이템으로 마스크가 인기가 많다고 하는 뉴스 기사도 접했을 정도로, 일본 사람들은 일상에서 마스크를 쓰는 게 하나의 유행처럼 자리 잡아 있습니다.



CONTACT US

일본 KOREA DESK 임재익 S.MANAGER

Tel. +81332667543 E-mail. Jaeik.Lim@jp.kpmg.com

Global Etiquette



3 일본 사람들과 카레를 먹을 때 밥과 카레를 한꺼번에 비벼 먹는 것은 실례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한 손가락에 떠먹을 만큼만 카레와 밥을 비벼서 먹습니다. 한꺼번에 섞어놓은 모양이 그리 좋아 보이지 않아서인가 봅니다.

4 스시(초밥)를 먹을 때 와사비(고추냉이)를 기호에 따라 곁들이는 경우가 있는데, 와사비는 간장에 섞지 않고 생선에 얹어서 먹는 게 바른 방법이라고 합니다.



일본 Korea Desk

KPMG 일본은 동경의 주 사무소와 더불어 오사카, 교토, 삿포로 등 12개의 사무소를 두고 있습니다. 일본 Korea Desk는 동경에서 KPMG 감사법인 및 세무법인과 함께 포스코, 한화에너지, SK하이닉스, NHN 등 일본 현지의 한국 기업들에게 감사, 세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본 내 한국 기업 및 주재원들에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KPMG의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Living the 7 Values! Lead by example: 술선수범

‘전문가의 자부심으로 열정과 책임을 다하여 모두에게 모범이 된다.’

KPMG Story의 Value는 ‘우리는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일할 것인가’를 이야기한다.
전 세계 KPMG 가족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행동 양식 7 Values 중 첫 번째 요소인
Lead by example(술선수범)에 대해 알아보자.

기업의 의사결정과 판단의 기준인 7 Values의 실천을 통해 전문가로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변화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고객의 지속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선제적 방안을 제시하는 전문가로서 ‘술선수범’하며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때 Vision 2020 ‘The Clear Choice’를 향한 ‘건강한 조직’, ‘행복한 일터’, ‘신뢰받는 조직’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술선수범’은 전문가적 자부심을 바탕으로 열정과 책임을 다하며 주인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스스로 살아 움직이는 모습이다. 우리가 만들어 낸 결과물을 통해 나와 우리, 세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사명감으로 각자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있는 ‘술선수범 Story’를 들어보자.

Key Activity | 전문가로서 자질과 소양을 배양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는다.

DO

- ☐ 전문가적 자질과 소양을 배양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 ☐ 각자의 직무 및 직위에 자부심을 가지고 의무를 준수한다.
- ☐ 타인보다 먼저 행동하고 과감히 도전한다.
- ☐ 안 되는 이유보다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 ☐ 조직 내 자신의 역할을 타인에게 미루지 않는다.
- ☐ 자신이 맡은 결과물에 대해 주인의식을 갖는다.

DO NOT

- ☐ 학습을 게을리하고 현재 알고 있는 지식에만 의존한다.
- ☐ 복장, 행동, 언어 등에서 전문가적 이미지를 저해하는 행동을 한다.
- ☐ 자신이 신경 쓰나 안 쓰나 결과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
- ☐ 목표 달성에 어려움이 있으면 쉽게 포기한다.
- ☐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여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한다.
- ☐ 자신의 권한과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다.

“전문가로서 자신과 소양을 배양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새로운 여정의 시작을 함께 하는 삼정KPMG - B&F1

IFRS17 프로젝트를 계기로 업계의 변화를 주도하며 선도 기업으로 성장하는 비전을 가진 고객사. 고객사가 프로젝트를 발판으로 업계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프로젝트의 Purpose가 아닐까?

고객이 바라던 수준 그 이상의 성과를 만들기 위해 전문성과 열정으로 통찰력을 발휘하며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기대가 많아 걱정도 많았는데, 기대 이상의 결과를 제시해 주었다”는 고객의 피드백은 우리가 Professional로서 전문성과 통찰력을 키우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매일 스스로 혁신과 변화를 추구하는 이유이다.



“타인보다 먼저 행동하고 과감히 도전한다.”

프로를 프로답게 만드는 것 - Deal Advisory1

M&A 시장에서 PE 고객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PE 고객의 특징은 업무의 질과 대응속도, 고객과의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우선시한다는 것이다. 다른 누구보다도 발 빠르게 대처할 줄 아는 전문성을 지닌 ‘프로’들을 보유하고 있다는 믿음이 많은 고객사가 삼정KPMG를 신뢰하고 선택하는 이유이다. 전문가는 스스로 수행하는 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었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협업을 진행함에 있어서도 같은 목표를 바라보며 자율적이고 열린 사고 방식으로 각자의 전문성을 가지고 새로운 시각을 만들어 혁신을 이끌어 내는 모습을 보여준다.

60명의 전문가가 함께한 여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것, 그 과정 속에는 누구보다 먼저 행동하고 새로운 도전에 주저함이 없었던 우리들이 있기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자신이 맡은 결과물에 대해 주인의식을 갖는다.”

나비효과 [Butterfly Effect] - ADC

“열심히 일해도 티가 나지 않는 경우, 속상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는 일 중 외적으로 화려하게 드러나지 않는 일에 대해 가끔 이런 질문에 대답할 때면 난감하기 일쑤이다. 회사 안에서 개인이 가지는 영향력은 생각보다 엄청나다. 지금 당장 하는 일이 소소하고 하찮게 느껴질지라도, 결국 그 작은 일들이 모여 회사의 성과를 만들고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다.

나 개인이 하는 일이 삼정KPMG 전체에 기여하고 있다는 책임감과 자부심을 통해, 자신이 하는 일에 스스로 가치를 부여하고 또 회사 전체에 미칠 영향력을 고민할 때, 진정한 의미의 Purpose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전문가로서 우리가 이 사회에 영향을 미칠 ‘나비효과’의 가능성을 늘 염두에 두고, 스스로 일에 가치를 부여하며 성실히 임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의 첫 걸음, 삼성KPMG '파란행복'의 시작!

삼성KPMG가 업계 최초로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파란행복'의 시작을 알렸다. 지난 2월 26일 오픈팅 세레모니를 개최한 후 인쇄, 카페, 헬스키퍼 서비스를 운영 중인 파란행복. 장애인들의 자립 기반을 위한 고용 창출 및 나눔과 상생경영 실천을 위해 나아가는 삼성KPMG의 '파란행복'을 지금부터 만나러 간다.



향긋한 커피로 행복을 선사하는 '파란행복 카페'

'파란행복 카페'는 5명의 발달장애인들이 일하는 사내 복지형 카페테리아로, 전문 바리스타 교육을 이수한 장애인 근로자들이 직접 커피와 음료 등을 만들어 판매한다. 주문자가 직접 입력하는 POS 시스템을 사용해 편리한 이용이 가능하며 최상급 원두를 사용한 전문 바리스타 커피 등 높은 품질의 식음료와 서비스 제공으로 임직원 복지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

"직업재활사로 일해오다, 좋은 기회로 파란행복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어 큰 영광입니다. 장애인 근로자들이 파란행복에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일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 또한 옆에서 돕고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근로자들이 더 친절하고, 성실하게 일할 수 있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보고, 느끼며 장애인 인식 개선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파란행복 카페, 이용인 대리

"파란행복 카페에 일할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기뻐했습니다. 많이 긴장도 되지만 설렘도 큼니다. 다양한 음료의 레시피를 외우기 힘들지만, 열심히 해서 맛있는 음료를 만들고 싶습니다. 파란행복 카페 많이 불러 오세요~!"

파란행복 카페, 이미란 사원





최상의 인쇄 퀄리티로 전문성을 더해 줄 ‘파란행복 인쇄사업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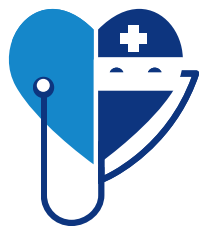
8명의 발달장애인들이 근무하는 ‘파란행복 인쇄사업소’는 최고의 디지털 인쇄장치와 설비를 사용한 최상의 인쇄 퀄리티로 삼성KPMG의 전문성을 더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현재 각종 보고서, 제안서, 명함 등의 인쇄물을 제작하고 있으며, 출력과 제본, 디자인 등 다양한 인쇄 업무 확대를 향후 2년 후에는 삼성KPMG 내 모든 인쇄를 전담할 계획이다.

“아무래도 장애인 근로자들과 함께 일하다 보면 처음에는 서로 맞춰 가야 할 상황들이 많겠지만, 조금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최상의 퀄리티로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삼성KPMG 임직원 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파란행복 인쇄소, 김민성 대리

“파란행복 인쇄소에 라보나 좋은 회사라는 것을 느꼈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업무를 하다 난처한 상황에 처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늘 해오던 대로 맡은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습니다.”

파란행복 인쇄소, 구교석 사원



건강과 힐링을 책임질 ‘파란행복 헬스키퍼’



‘파란행복 헬스키퍼’는 4명의 시각장애인 전문 마사지사가 임직원의 피로와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안마 서비스를 제공한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내 인트라넷으로 헬스키퍼 서비스 신청 시스템을 구축했다. 삼성KPMG 가족과 파란행복 장애인 근로자들도 해당 서비스를 함께 이용할 수 있으며, 행복한 일터를 위한 삼성KPMG만의 힐링 서비스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파란행복 헬스키퍼로 근무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양화반, 치유 안마 등 특수수기인양을 활용해 목과 어깨 위주로 집중적인 케어를 통해 근육이 활성화 되도록 돕겠습니다. 앞으로 삼성KPMG 가족들의 건강과 스트레스 해소에 큰 도움이 되는 헬스키퍼가 되겠습니다.”

파란행복 헬스키퍼, 김돈준 사원

NEWS

MONTHLY NEWS

삼성KPMG, 업계 최초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파란행복’ 출범



1, 2월 26일 오픈닝 세레모니를 갖고, 업계 최초로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파란행복’을 출범했다.
3, 4. 지난 2월 19일, ‘파란행복’ 입사 예정인 발달장애인과 부모님을 삼성KPMG 본사로 초청해 입사설명회를 진행했다.

삼성KPMG가 2월 26일 오픈닝 세레모니를 갖고, 업계 최초로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파란행복’을 출범했다.

‘파란행복’은 지난 2017년 9월 28일, 삼성KPMG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위한 상호양해각서(MOU)를 체결함으로써 시작됐다. 협약 이후 삼성KPMG는 인쇄와 카페, 시각장애인 건강보조 서비스 직무로 17명의 장애인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했고, 장애인 근로자들의 성장과 자립을 위해 사회복지사와 각 업무 영역의 전문가도 추가 영입했다. 장애인 근로자들은 발달장애인의 성장을 돕는 기업인 베어베터(Bear Better)에서 근무한 경력자로서, 삼성KPMG는 이들이 편안하고 익숙한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작업 공간을 최대한 동일한 환경으로 맞춰 설계했다. 최고의 품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계와 장비도 모두 최신 시설로 설치했다. 지난 2월 19일에는 ‘파란행복’ 입사 예정인 발달장애인과 부모님을 삼성KPMG 본사로 초청해 입사설명회를 진행해 상호 공감의 시간을 가졌으며, 당월 26일에는 삼성KPMG 김교태 CEO를 비롯해 ‘파란행복’의 대표이사를 맡은 한은섭 부대표, 임원 및 고문단 그리고 ‘파란행복’ 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파란행복’ 인쇄소에서 오픈닝 세레모니를 열었다. 행사에 참석한 이들 모두 ‘파란행복’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한 일터의 성공을 기원했다. 삼성KPMG 김교태 CEO는 “‘파란행복’ 운영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구분을 허물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더불어 함께하는 ‘행복한 일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하며, “앞으로 사회적 인식도 개선돼 장애인 고용이 활성화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삼정KPMG, '2018년도 개정세법 설명회' 개최

삼정KPMG가 지난 2월 8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본관 컨퍼런스룸에서 '2018년도 개정세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삼정KPMG의 조세 전문가들이 발표자로 나서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등 기업 관련 세목별 주요 개정 내용을 입법 취지·개정 배경과 함께 다뤘다.

첫 세션은 삼정KPMG 나석환 상무가 법인세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나 상무는 “법인세 최고세율 과표구간 신설 및 종전 기업소득환류세제가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로 대체되면서 배당금 지급액이 환류액에서 제외되는 등 기업의 세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세심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상속증여세의 주요 개정내용은 삼정KPMG 정병수 상무가 발표했다. 정 상무는 “이번 세법 개정으로 대주주의 범위가 확대되고 해당 주식의 양도소득세율이 인상될 뿐만 아니라, 가업상속공제와 관련하여 가업영위기간별 공제한도가 조정되고 특히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상속세 납부능력 요건이 신설된다”며 큰 변화를 예상했다. 끝으로 삼정KPMG 오상범 전무가 다국적 기업 이자 비용 손비인정 제한제도 도입과 혼성불일치 해소규정 신설, 거주자 판정기준 합리화 등 전반적인 국제조세를 설명했다.

* Contact: TAX 김성현 상무 sunghyunkim@kr.kpmg.com



삼정KPMG, 2018 평창 패럴림픽 성화봉송 참가

지난 3월 4일, 삼정KPMG가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 성화봉송에 참여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교육 서비스 공식 제공사로 활동 중인 EF Education First에 초청을 받아 L&D본부 서지희 전무가 법인을 대표하여 성화봉송 주자로 나섰다. 평창 패럴림픽 성화봉송 슬로건은 ‘모두를 빛나게 하는 불꽃’ (Let Everyone Shine)으로, 서지희 전무는 서울 여의도 사거리 구간을 성화봉송 주자로 뛰었다. 서지희 전무는 “법인을 대표로 성화봉송 주자로 참여하게 되어 매우 영광이다. 특히 패럴림픽에서 성화봉송을 시작한 것이 88년 서울 장애인 올림픽이 처음이었기에, 30년 전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작된 성화의 불씨를 잇는 값진 여정이었다. 모두가 힘을 모아 패럴림픽도 열심히 응원해주길 바라고, 저 역시도 출전하는 모든 선수들이 기량을 발휘하며 빛날 수 있기를 응원하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 사랑나눔 '제과·제빵 봉사활동' 전개

지난 2월 24일 삼정KPMG가 제과·제빵 봉사활동을 통해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사랑을 선물했다.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한 대한적십자 산하 봉사관에서 진행된 봉사에는 20여 명의 임직원과 가족이 참석했다. 이른 아침부터 모인 삼정KPMG 가족들은 정성스레 빵을 만들고, 포장하여 주변의 독거노인가정과 노숙자쉼터에 배달했다. 한편, 삼정KPMG는 3월에도 '제과·제빵 봉사활동'을 비롯해 만성신부전증 환우들을 위한 '사랑의 밥상' 봉사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The KPMG Story

The KPMG Story는 KPMG가 왜 존재하고(Purpose) 어떤 가치 속에 일하는지(Value), 무엇을 지향하고(Vision) 이를 위해 어떻게 나아가며(Strategic) 그 과정 속에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인지(Promise)를 명확히 보여주는, 일상 행동과 중요한 의사결정에 대한 일관된 지침이다.

This is KPMG and
this is our story

This is why we're here

Inspiring Confidence
Empowering Change
신뢰를 부여하고
세상의 변화를 주도한다

This is our Purpose

This is what we believe in

- Lead by example 솔선수범
- Work together 협업
- Respect the individual 존중
- Seek the facts and provide insight 통찰력
- Communicate openly and honestly 소통
- Improve communities 공헌
- Act with integrity 정직성실

These are our Values

This is what we want to be

- The Clear Choice:
- Our people are extraordinary
 - Our clients see a difference in us
 - The public trusts us

This is our Vision

This is how we'll get there

We will:

- Drive a relentless focus on quality and excellent service
- Take a long-term, sustainable view
- Act as a multi-disciplinary firm, collaborating seamlessly
- Invest together in our chosen global growth priorities
- Continuously improve quality, consistency and efficiency
- Maintain a passionate focus on our clients
- Deploy globally our highly talented people
- Bring insights and innovative ideas
- Build public trust

This is our Strategy

This is how we want the world to see us

With passion and purpose, we work shoulder-to-shoulder with you, integrating innovative approaches and deep expertise to deliver real results.

This is our Promise

삼성 KPMG

독자 여러분의 의견은 Channel을 만드는 데 소중한 자료가 됩니다. Channel을 읽은 후의 느낌과 다양한 생각을 메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소가 변경되었거나, 신규 구독을 원하시는 분 또는 Channel 수신을 원치 않는 분께서는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mail : kr-fmchannel@kr.kpmg.com Tel : 02-2112-7567

© 2018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